

## 아셈 한국민간포럼 Korea People's Forum on ASEM / KOPFA

국내 연락처: 참여연대 110-734 서울시 종로구 인국동 175-87 인국빌딩 5층 전화: 723-4255 / 팩스: 723-5055 나우누리 GO PSD  
현지 런던연락처: 0171 354-0883 OIAM

수 신 담당 기자  
발 신 아셈 한국민간포럼(담당 : 참여연대 장소영 723-4255)  
제 목 아셈관련 런던 현지 민간단체 회의  
일 자 98. 4. 2 (총 2쪽)

## 아 셈(ASEM) 보 도 자 료 IV

### 런던 아셈정상회담을 바로 앞두고 민간단체회의를 가져

국제화는 한 지역에 대한 양 지역의 실태, 이 지역의 경제위기 주요 원인도

일시 및 장소 : 3월 31일-4월 1일 런던 WC2d, 왕립복지협회

1. 아셈정상회담을 바로 앞두고 아시아-유럽민간단체들은 3월 31-4월 1일 양일간, 런던 왕립복지협회에서 “아셈과 경제위기-민의 현실과 대응”라는 주제로 국제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는 아시아-유럽 사회단체 네트워크인 “아시아-유럽 시민포럼”이 주최하였으며, 이 포럼에는 아셈한국민간포럼도 속해있다.
2. 이날 회의는 영구의 주서기 Rt. Hon Clare Short의 연설과 민간단체 대표 연설로 시작되었고 첫 날은 “아시아 현 경제의 위기상황” 주제로, 둘째 날은 “아시아-유럽 간의 무역과 투자”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양 지역의 민간단체의 입장문서인 “아시아-유럽 민중의 전망과 제안-People's Vision”(아셈보도자료2참조 3.27자)을 채택하였다.
- 3.“아시아의 현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논의는 국제금융기관의 활동을 평가, 고무시키며 국제금융기관의 정책에 제시하기 위하여 거시 경제정책이 소외된 사람들의 권리와 복지를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 각국의 사례, 부문별 현상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언자: Sulak Sivaraksa, 태국 교육 운동의 수뇌

Walden Bello, 필리핀 대학 교수, Global South의 중역

Dr Martin Khor, 제 3세계 통신망의 지휘자

엄영애, 전국농민총연맹(전농)

Evelyn Inoue, 환태평양 자원 센터 일본 지사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처장 등

#### 4. “아시아-유럽의 국가간의 무역과 투자”

둘째 날의 회의는 두 지역간의 무역과 투자 관계에 초점을 두면서, 2차 정상회담에서 채택될 예정인 ASEM의 무역 활성화 행동 계획과 투자 촉진 행동계획을 민중의 관점에서 비판했다. 또한 다국적 단체의 활동과 주도적인 경제 연합 - WTO, OECD, MAI(다자간투자협정) 등 -의 규정을 평가했다. 이날 논의는 무역과 투자가 일반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책을 제시하였고, 집중적인 논제는 농업과 식량 안정과 아시아-유럽의 안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 두 영역에 있어 무역 규정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과 양 지역에서 활발히 이뤄지는 무기 교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날의 토론은 무역과 투자가 보다 인권과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진행 돼야하고, 군사력안보에서 인간안보로의 시각이 전환이라는 점에서 아셈의 “무역과 투자에 대한 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발언자: Jessica Woodroffe, 영국 세계 발전 운동

Billy de la Rosa, 필리핀 민다나오의 교류 연구 포럼

Joseph Lim, 필리핀 대학

Andy Rutherford, 영국 One World Action

Dr Gareth Api Richard, 영국 맨체스터 대학

윤정숙, 한국 여성단체연합(여연)